

“해미읍성 역사 지우는 ‘성지화’ 안돼”

허정 스님, 가톨릭 교구장에 편지… “종교화합의 장소 활용”

현재 서산·당진은 ‘교황암’ 중이다. 교황 방문 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는 물론 해미읍성 주위를 가톨릭 성지화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보다 못한 지역 사찰 주지 스님이 가톨릭 대전교구 교구장에 편지를 보냈다. 자신의 역사를 부각하기 위해 다른 역사를 지우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담아서.

서산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7월 20일 가톨릭 대전교구 유홍식 교구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허정 스님은 편지에서 “지난해 교황이 다녀가고 올해 후속작업을 위해 198억 원이라는 사업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려놓고 국회의 승낙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시에서는 종교적인 사업으로 보지 말고 우리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봐달라고 말하지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유지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특정 종교의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는 순교자 103명이 성인이 됐다. 순교자가 있는 곳은 어디고 성지로서

불리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해미읍성도 같은 이유로 해미성지로 부른다”면서 “가톨릭은 성지화 작업을 한다며 땅에 새겨진 타종교 흔적에 천주교 순교사로 ‘덮어쓰기’를 하고 있다. ‘나의 역사 만들기’가 결과적으로는 ‘남의 역사 지우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미읍성, 사방비보 사상 담겨 지역 시민 위한 공동체적 공간 천진암 등 ‘역사 덮어쓰기’ 피해

허정 스님은 해미읍성이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공동체 회복의 장소, 종교화합의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읍성은 이순신장군이 근무했던 왜구를 지키는 역사의 현장이며 연등축제, 연날리기, 활쏘기와 같은 민속놀이와 민속공예가 펼쳐지는 체험의 현장이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주말집, 찻집이 있는 소풍과 교류의 장소”라면서 “해미읍성은 특정종교의 성지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소풍과 화합의 장소로 남는 것이 후손들을 위해서나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미읍성 동서남북에는 해미읍성과 같은 역사를 가진 돌로 만든 미륵불이 사방비보(四方禪補)로 세워져 있다”면서 “해미읍성은 가톨릭 박해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시대 축조된 유교의 흔적도 많다. 불교와 천주교와 유교의 흔적이 중첩되는 해미읍성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가 만나게 되는 소풍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허정 스님의 우려대로 가톨릭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기위해 성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 사찰이 가톨릭 성지로 변하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

광주 천진암과 여주 주여사가 대표적 사례다. 천진암은 이제 가톨릭 발상 관련 사적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주여사는 가톨릭 강화처로 변화되고 있다. 주여사의 경우 조계종 2교구 신도회가 나서서 가톨릭 성지화를 저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해미읍성 성지화는 광주 천진암에 이은 가톨릭의 또 다른 불교와 우리역사 문화지우기 행위”이며 “이 땅의 전통문화를 점령하려는 만행”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교황 방문을 이유로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한다면 다른 유명 종교 지도자들의 방한에는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현대사회의 또 다른 종교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여사 문제를 다뤘었던 민하기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은 “주여사의 경우 이미 가톨릭이 지역 국유림 5만여평에 대한 40년 사용권한을 따낸 상태”라면서 “주여사를 복원하지 않으면 가톨릭계의 수도원 건립 등 성지화를 막을 수 없다”고 상황을 토로했다.

이어 “이 같은 가톨릭 성지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불교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차원에서 근현대 사찰을 연구하는 조직을 만들어 발굴해내는 지속적인 작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佛頭를 의자로 ... 불교계 ‘공분’

대구 H백화점서 판매, 지역 불교계 항의 방문

대불청 “부처님께 참회하라” 백화점 사과 공문 및 공지

대구광역시 H백화점에서 부처님의 머리를 표현한 불두상을 의자로 판매해 불교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H백화점 대구점의 가정용품 전문 업체 ‘까레’ 매장은 지난 6월부터 알루미늄으로 만든 불두 형상의 의자를 24만원의 가격을 받고 판매했다. 이 제품은 10개가 수입된 H백화점 본점과 대구점에 각각 1개씩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불교계는 공분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는 8월 3일 긴급회의를 열고 4일 해당 백화점에 항의방문을 했다.

대한불교청년회도 4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백화점의 제품 철수와 회수, 사과를 촉구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성명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인류 성인중의 한분으로 모두가 숭상하는 부처님을 상품화시키는 금번 행위를 묵과한다면 종교적 모독과 편향을 넘어 우리 사회의 포퓰러 사회규범은 무너질 것”이라며 “종교 모독과 편향



대구 H백화점서 판매한 불두 모양의 의자

의 문제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함께 풀어 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 H백화점과 판매업체는 즉각 상품 판매 중지 및 판매된 상품을 회수 조치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표하며 부처님 앞에 참회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에 불응할 시 전국 불교계 단체와 연대하여 H백화점의 전국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공분에 대구 H백화점은 해당 제품을 철수하고 사과문을 매장 입구에 게재했다. 장정수 H백화점 대구지점 판매기획팀장은 “제품을 제대로 확인 못한 것은 잘못이 크다”며 “대구불교총연합회와 불교계에게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과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 “이주노조 승인하라”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가 고용노동부의 ‘이주노조’ 설립신청 반려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위는 7월 31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올 6월25일 이주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반대’ 등의 이주노조 규약이 정치운동금지 위반된다면서 또다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고용허가제는 노동자의 자율적인 사업장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의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주노조 규약에 노예법과 같은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꾸어 노조사업 목적에 둔 것을 삭제하라는 것은 이주노조의 존립을 부정하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재적조합원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법에는 노조 설립 시 임원의 신분과 조합원의 숫자만 요구하지 조합원 명단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아프리카 학교 건립 ‘눈앞’

탄자니아 농업학교 공정률 50%... 내년 4월 완공 예정

조계종이 추진하는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 불사가 순항 중이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8월 4일 “한국 불교 세계화와 자비 실천을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추진 중인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이 절반 이상 진행됐으며 오는 2016년 4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1인 1달러 미만의 돈으로 하루를 연명하는 절망의 땅 아프리카에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해 교육 시설 건립 계획을 내놓은 지 2년 만이다.

아름다운동행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캄캄보니 지역 총면적 10만5785㎡(3만 2000평) 부지에 1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6개 교실을 비롯해 교부실, 행정실, 강당, 기숙사, 농업 실습장, 운동장 등을 조성 중이다. 내년 4월 완공되면 8월 개교해 9월부터 정식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 2013년 9월 첫 삽을 뜬 농업기술고 건립 사업은 단기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조보다 꾸준한 역량을 키우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농업 인재 육성에 주안점을 뒀다.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건립 중인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본관, 행정동 및 도서관의 공사 진행 모습. 현재까지 50%가량이 진행됐으며,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극심한 질병과 기아, 높은 문맹률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에 선진농업기술을 보급·교육해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지난 2년 동안 학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부처님 자비의 꽃을 피우고자 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후원의밤, 선서화전 등 스님과 신도들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 서 약 36억원의 건립 기금이 모아졌다.

아름다운동행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

원으로 학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책걸상을 비롯해 농기계, 도서관 기자재 등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후원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7월부터 한 달 3만원의 돈으로 탄자니아 빈곤 아동과 후원자 간 1대1 결연을 맺어주는 후원 사업을 시작했다. 후원 동참 문의 (02)737-9594

신성민 기자

풍경소리, 지역밀착 명상프로그램 운영

지하철과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온 ‘풍경소리(대표 선목)’는 “서울시와 성북구의 지원으로 8월 부터 12월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월 3일 밝혔다.

하반기동안 진행되는 풍경소리 명상프로그램은 이웃과 함께 명상을 나눌 수 있는 ‘마을강사 양성과정’과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심신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마을강사 양성과정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인성명상(자아명상을 기초

로 한 마음 꽃밭 교실 안내자 양성)’과 ‘희망연대노조’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몸담 건강교실 마을강사양성’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성북구 몸담건강마을학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몸담건강교실’은 명상프로그램 수강료의 일부를 ‘마을화페(e-포인트)’로 책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마을활동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풍경소리는 지난 2014년 성북구 동소문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함께 하는 성북마당’ ‘성북아동청소년 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며 지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뉴욕서 日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는 8월 4일 뉴욕 주 통아일랜드 낫소 카운티에 있는 홀로코스트 센터를 찾아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번 규탄시위는 미국 뉴욕에서 위안부로 끌려가 겪은 피해를 알리고, 위안부비와 소녀상 추가 건립을 위한 여론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강 할머니는 홀로코스트 센터 측에 “일

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더 많이 다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강 할머니는 낫소 카운티 아이젠하워 공원 베테랑스 메모리얼에 있는 위안부 기념비를 참배하고 “미국에 더 많은 위안부 기념비와 소녀상이 세워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할머니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를 하고 10일 그레이스 팅 연방 하원의원을 면담한 뒤 귀국했다. 노덕현 기자

2천만 불자님들을 위한

불경 황금 수의!!

남이 보는 옷이 아닙니다. 온전히 불자님만을 위한 옷입니다.

고인에 대한 종교적 배려와 존중이 동반된 국내 유일의 수의 부처님의 가피로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길 기원합니다.

유사제품 주의요망 신고전화 010-3071-3658

불경(황금)수의는 안동삼베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디자인 특허 원단 이므로 특허 및 디자인 저작권 침해는 사전통보없이 법무사를 통한 민, 형사고발 및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으신 고객분은 진품확인전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진품확인전화 010-3071-3658

제조사 안동삼베닷컴 안동시 안기동 119번지
판매처 안동종교수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47 (별나라타워 505호)

주문 및 상담
031) 595-1237 / 010-2778-1971

성분/대마100% 원사/중국 제조/한국(안동)

[특] 2,200,000원

[일] 1,500,000원

악수, 버선, 도포(원삼)띠, 면모에 불교경전을 황금글씨로 새겨 부처님께 믿고 의지함을 기원하였습니다.